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사의 국내 전문의수련 실태에 관한 조사

— 1967년~1976년 졸업자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 삼 섭

=Abstract=

###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Inturnships and Residency Applied in Korea by Woman Doctors Graduated from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During the Year of 1967~1976**

Sam Sop Choi, M.D.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inturnships and residency applied in country by woman doctors graduated from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during the year of 1967~1976,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of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hospitals and distribution of inturnships and residency applied after graduation medical college, was carried out from July to August 1977 with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annual registration record of medical doctor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 in May 1976.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 1) Out of total 510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during the year of 1967~1976, 228 doctors (44.7%) who are living in country had registered the annual registration of medical doctor in the year of 1976.
- 2) 96.5% of 228 woman doctors were applied to inturnships after graduation Ewha Medical College and also 96.5% of them (220 doctors) were applied to residency.
- 3) It was found increasing in the rate of inturnships and residency applying according to the year of graduation respectively.
- 4) Woman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during last 10 years had taken inturnships and residency from 37 educational hospitals in country and 23 hospitals of them are locatted in Seoul City area.
- 5) It was found increasing hospitals in number, where inturnships and/or residency applied by woman doctors according to the year of graduation respectively
- 6) 82.2% of 220 inturns and 86.1% of 150 residents among woman doctors

graduated from Ewha Medical College had taken the training in the hospitals located in Seoul City area.

7) 61.0% of woman doctors had taken the course of inturnships and residency at same hospital and the rest 39.0% of them had moved to other hospitals for residency after inturnships.

## 서 론

한 나라의 의학교육은 그 나라의 의료요구, 학문적 요구 및 학습자의 취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내용과 합당한 교육기간 그리고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1)2)</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의수련교육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왔으며 오도된 인턴수련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의 임상실습이 학생은 물론 교수까지도 소홀히 하는 경향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3)</sup>.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을 계기로 국민보건목표는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장차 국민 개보현구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3)4)</sup>.

이러한 시점에서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려고 인턴·레지던트수련을 택하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장차 졸업생에 대한 전문의 수련교육 지도의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도 그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본조사를 이화의과대학생 졸업후 수련교육 및 의료활동에 관한 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A. 조사대상

본 조사는 10년간(1967~1976)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이화의대)을 졸업하고 1976년 5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976년도 의사정기신고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수는 해당년도 졸업생 총수 510명의 44.7%인 228명 이었다(표 1).

### B. 조사방법

대한의학협회에 보관중인 1976년도 의사정기 신고서 부분을 토대로 하여 신고사항중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에 관한 자료를 본 조사 목적으로 제작한 조사카드에 옮긴 후에 발견된 관계자료의 공란 또는 미비사항에 대하여서는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동거생에게 조회하여

표 1. 조사대상자\*(졸업년도별)

졸업년도	구 분	졸업자수 (A)	조사대상자 수* (B)	% (B/A)
Group "A"	1967	38	14	36.8
	1968	41	10	24.4
	1969	53	10	18.9
	1970	56	14	25.0
	1971	55	25	45.5
	소계	243	73	30.4
Group "B"	1972	51	15	29.5
	1973	41	22	53.7
	1974	50	30	60.0
	1975	65	45	69.2
	1976	60	43	71.7
	소계	267	155	57.8
합	계	510	228	44.7

\* 1976년도 의사정기신고한 국내거주자.

보충하였다. 자료처리에 있어서는 조사 항목에 기호를 붙여 수치화하여 집계제표화 하였다. 제표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졸업 후 경과년수에 따른 수련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1976~1971년중에 졸업한 의사를 그룹 "A"로, 1972~1976년중에 졸업한 의사를 그룹 "B"로 구분하였다. 한편 그룹 "B"의 레지던트 수련관계 자료 집계에 있어서는 1976년도에 졸업한 의사는 인턴수련 중이기 때문에 그 대상년도를 1972~1975년으로 하였다. 본조사는 1977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간 중에 수행하였다.

## 조사성적 및 고안

### A. 인턴 수련교육

이화의대를 졸업한 후 인턴수련을 택한 의사는 96.5%(220명)였으며, 3.5%(8명)만이 인턴수련을 택하지 않았다. 한편 졸업년도별 -인턴 수련율은 그룹 "A"

표 2. 1976년도 의사신고환 국내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졸업년도별 인턴수련실태

졸업년도	수련구분	합 계 (조사대상자)		비인턴수련자		인턴수련자					
						소 계		수료자		수련중인자	
		No.	%	No.	%	No.	%	No.	%	No.	%
Group "A"	1967	14	100.0	1	7.1	13	92.9	13	92.9	—	—
	1968	10	100.0	—	—	10	100.0	10	100.0	—	—
	1969	10	100.0	—	—	10	100.0	10	100.0	—	—
	1970	15	100.0	2	13.3	13	86.7	13	86.7	—	—
	1971	24	100.0	—	—	24	100.0	24	100.0	—	—
	소계	73	100.0	3	4.1	70	95.9	70	95.9	—	—
Group "B"	1972	15	100.0	—	—	15	100.0	15	100.0	—	—
	1973	22	100.0	1	4.5	21	95.5	21	95.5	—	—
	1974	30	100.0	3	10.0	27	90.0	27	90.0	—	—
	1975	45	100.0	—	—	45	100.0	40	88.9	5	11.1
	1976	43	100.0	1	2.3	42	97.7	—	—	42	97.7
	소계	155	100.0	5	3.2	150	96.8	103	66.5	47	30.3
합	계	228	100.0	8	3.5	220	96.5	173	75.9	47	20.6

(1967~1971년 졸업)에 있어서는 95.9%, 그룹 "B" (1972~1976년 졸업)에 있어서는 96.8% 였다(표 2). 이러한 인턴수련율은 崔<sup>5)</sup>가 보고한 우리나라 년도별 인턴 취업율인 1973년도의 72.9%, 1974년도의 80.9%, 1975년도의 83.3%, 1976년도의 82.5%에 비하면 현저히 높으나, 朴<sup>4)</sup> 등이 1976년 의사정기 신고환 국내 6개 의과대학 졸업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보고한 인턴수련율인 1965년도의 92.5%, 1970년도의 94.4% 보다는 다소 높으나 근사한 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있어서의 인턴수련율이 崔가 보고한 인턴수련율과 큰 차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은 조사대상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조사 대상은 1976년 현재 국내거주 정기의사 신고자였기 때문에 졸업 후 경과년도에 따른 인턴수련 누적율인 것에 비해, 崔가 조사한 대상은 해당년도의 단순 인턴취업율이기 때문에 졸업한 연도에 군입대등의 이유로 그해 인턴수련을 택하지 않은자는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은 1976년 정기의사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朴등의 인턴수련율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것은 국내의사의 90~95%가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수련과정의 일부인 인턴수련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때문에 의사들이 전문의를 선호(選好)하고 일반의사의 참된 기능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현행 우리나

라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이 내포하고있는 문제점, 즉 이론에 치우쳐 임상적 능력을 등한시하는 교육적 폐단 때문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서도 실제로 환자를 다룰 자신감을 갖게 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인턴수련율이 타 의과대학 졸업의사 보다는 다소 높은 이유의 하나가 군복무라는 어느면에서의 임상에 접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임상에 대한 불안때문일지도 모른다. 의학교육제도에 있어서 의과대학 졸업자가 인턴수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반의사로서 1차적 국민보건의료에 일할 수 없다면 교육년한을 1년 연장하여 인턴수련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임상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임상교과과정에 현행 인턴 수준의 임상능력 수준을 반영시키고, 전문의 수련제도에서는 현행 인턴수련과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B. 레지던트 수련교육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수련과정을 수료한 의사가 특정한 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하여 레지던트수련을 택하는 인턴수련의는 96.5%(167명)였으며, 3.5%(6명)만이 레지던트수련을 택하지 않았다. 한편 졸업년도별 레지던트수련율은 그룹 A에 있어서는 94.3%, 그룹 B에 있어서는 98.1%였다(표 3). 이러한 레지던트 수련율은 朴<sup>4)</sup> 등이 보고한 1960, 1965 및

표 3. 1976년도 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대의 졸업의사의 졸업년도별 레지멘트수련실태

졸업년도	수련구분	합 계 (인턴수료자)		비레지멘트 수련자		레 지 멘 트 수 련 자 소 계		레 지 멘 트 수 련 자 수 료 자		수련증인자	
		No.	%	No.	%	No.	%	No.	%	No.	%
Group "A"	1967	13	100.0	—	—	13	100.0	11	84.6	2	15.4
	1968	10	100.0	1	10.0	9	90.0	8	80.0	1	10.0
	1969	10	100.0	—	—	10	100.0	10	100.0	—	—
	1970	13	100.0	1	7.7	12	92.3	12	92.3	—	—
	1971	24	100.0	2	8.3	22	91.7	17	70.9	5	20.8
	소계	70	100.0	4	5.7	66	94.3	58	82.9	8	11.4
Group "B"	1972	15	100.0	1	6.7	14	93.3	—	—	14	93.3
	1973	21	100.0	1	4.8	20	95.2	—	—	20	95.2
	1974	27	100.0	—	—	27	100.0	—	—	27	100.0
	1975	40	100.0	—	—	40	100.0	—	—	40	100.0
	1976	—	100.0	—	—	—	—	—	—	—	—
	소계	103	100.0	2	1.9	101	98.1	—	—	101	98.1
합	계	173	100.0	6	3.5	167	96.5	58	33.5	109	63.0

표 4. 1976년도 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대의 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의로서설별 수련의 분포 (1967~1976년도 졸업자)

수련병원	수련내용 원병원수	인 턴 수 련						레 지 멘 트 수 련						
		합 계		Group A (1967~1971)		Group B (1972~1976)		합 계		Group A (1967~1971)		Group B* (1972~1975)		
		No.	%	No.	%	No.	%	No.	%	No.	%	No.	%	
국	사립병원	이화대학병원 (1)	72	32.7	19	27.1	53	35.3	67	40.1	23	34.8	44	43.6
		기타대학병원 (6)	34	15.5	17	24.3	17	11.3	30	18.0	17	25.8	13	12.9
		기 타 병 원 (15)	42	19.1	8	11.4	34	22.7	27	16.2	9	13.6	18	17.8
		소 계 (22)	148	67.3	44	62.8	104	69.3	124	74.3	49	74.2	75	74.3
내	국립병원	대학 병원 (3)	8	3.6	5	7.2	3	2.0	12	7.2	7	10.6	5	4.9
		기 타 병 원 (5)	38	17.3	8	11.4	30	20.0	26	15.6	7	10.6	19	18.8
		소 계 (8)	46	20.9	13	18.6	33	22.0	38	22.8	14	21.2	24	23.7
병	공립병원	시 립 병 원 (2)	4	1.8	3	4.3	1	0.7	—	—	—	—	—	—
		기 타 병 원 (3)	14	6.4	4	5.7	10	6.7	3	1.7	1	1.5	2	2.0
		소 계 (5)	18	8.2	7	10.0	11	7.4	3	1.7	1	1.5	2	2.0
원	도 립 병 원 (2)	2	0.9	0	—	2	1.3	—	—	—	—	—	—	
	계 (37)	214	97.3	64	91.4	150	100.0	165	98.8	64	96.9	101	100.0	
기	타(미국)	(4)	6	2.7	6	8.6	0	—	2	1.2	2	3.1	0	—
합	계	(41)	220	100.0	70	100.0	50	100.0	167	100.0	66	100.0	101	100.0

\*인턴증인 1976년도 졸업자 제외.

표 5. 1976년도 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지역별 병원별 수련의 분포  
(1967~1976년도 졸업자)

지 역	수련구분 수련할병원 (설립자)	인턴 수련자수(졸업년도별)						레지던트수련자수(졸업년도별)						
		합 계		Group A (1967~1971)		Group B (1972~1976)		합 계		Group A (1967~1971)		Group B* (1972~1975)		
		No.	%	No.	%	No.	%	No.	%	No.	%	No.	%	
서울 시 지 역	1. 이화의대병원(사립)	72	(32.8)	19	(27.2)	53	(35.6)	67	(40.3)	23	(34.8)	44	(44.0)	
	2. 연세의대병원(사립)	22		9		13		14		7		7		
	3. 카톨릭의대병원(사립)	10		7		3		9		6		3		
	4. 고려의대병원(사립)	1		1		0		1		1		0		
	5. 한양의대병원(사립)	1		0		1		3		2		1		
	6. 경희의대병원(사립)	0		0		0		1		1		0		
	7. 중앙의대병원(사립)	0		0		0		2		0		2		
	8. 고려병원(사립)	4		0		4		4		0		4		
	9. 서울위생병원(사립)	5		1		4		1		0		1		
	10. 순천향병원(사립)	4		0		4		2		0		2		
	11. 백병원(사립)	1		0		1		0		0		0		
	12. 영등성심병원(사립)	0		0		0		1		0		1		
	13. 을지병원(사립)	0		0		0		1		0		1		
	14. 서울의대병원(국립)	7		5		2		9		6		3		
	15. 국립의료원(국립)	26		8		18		22		7		15		
	16. 국립서울병원(국립)	7		0		7		2		0		2		
	17. 국립원호병원(국립)	3		0		3		0		0		0		
	18. 국립경찰병원(국립)	1		0		1		2		0		2		
	19. 원자력병원(국립)	1		0		1		0		0		0		
	20. 시립중부병원(공립)	2		2		0		0		0		0		
	21. 시립동부병원(공립)	2		1		1		0		0		0		
	22. 서울적십자병원(공립)	8		3		5		1		0		1		
	23. 한일병원(공립)	4		1		3		2		1		1		
소 계		181	82.2	57	81.4	124	82.6	144	86.1	54	81.8		89.0	
지 파 기 역	부 산 직 활 시	24. 부산일신병원(사립)	5		0		5		3		2		1	
	25. 부산침례병원(사립)	4		1		3		2		0		2		
	26. 부산복음병원(사립)	0		0		0		1		1		0		
	27. 부산의대병원(국립)	1		0		1		2		1		1		
	경 기	28. 인천기독병원(사립)	3		0		3		0		0		0	
	29. 경기도립병원(도립)	1		0		1		0		0		0		
	30. 수원도립병원(도립)	1		0		1		0		0		0		
강 원	31. 원주기독병원(사립)	5		1		4		3		1		2		
32. 장성병원(공립)	2		0		2		0		0		0			
기 역	경 북	33. 대구동산병원(사립)	0		0		0		1		1		0	
	34. 대구파티마병원(사립)	1		1		0		1		1		0		
전 북 의 국	전 북	35. 전주예수병원(사립)	9		4		5		6		2		4	
	36. 전북의대병원(국립)	0		0		0		1		0		1		
	37. 광주기독병원(사립)	1	0.5	0	—	1	0.6	1	0.7	1	1.5	0	—	
38. 기타병원(미국)	6	2.7	6	8.6	0	—	2	1.2	2	3.0	0	—		
소 계		39	17.8	13	18.6	26	17.4	23	13.9	12	18.2	11	11.0	
합 계		220	100.0	70	100.0	150	100.0	167	100.0	66	100.0	101	100.0	
비고(수련의 취업 국내병원실수)		(30)		(16)		(26)		(28)		(17)		(22)		

\* 인턴수련중인 1976년도 졸업자 제외.

표 0-2. 1970년도 의사신고관 국내거주 이과대학 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인턴수련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관계 (1967~1971년도 졸업자)

지역	인턴수련병원	레지던트수련병원	1 이화 의대 병원	2 연세 의대 병원	3 카톨릭의대 병원	4 고려 의대 병원	5 한양 의대 병원	6 경희 의대 병원	7 서울 의대 병원	8 국립 의료원	9 한일 병원	10 부산 산일신병원	11 부산 북음병원	12 부산 기독병원	13 대구 동산병원	14 대구 파타마병원	15 전주 예수병원	16 광주 기독병원	국외수련병원(미)	레지던트비전급자	합계		
서울시	1. 이화 의대 병원	13	1							1	1									2	19		
	2. 연세 의대 병원	5	3					1														9	
	3. 카톨릭의대 병원	1		5		1																7	
	4. 고려 의대 병원					1																1	
	5. 서울 위생 병원				1																	1	
	6. 서울 의대 병원								5													5	
	7. 국립 의료원					1	1			5		1										8	
	8. 시립 중부 병원	1									1											2	
	9. 시립 동부 병원	1																				1	
	10. 서울척십자병원	2											1									3	
	11. 한일 병원											1										1	
기타지역	12. 부산 침례 병원																				1	1	
	13. 원주 기독 병원													1								1	
	14. 대구파타마병원															1						1	
	15. 전주 예수 병원													1			2	1				4	
국외	16. 기타병원(미국)		2							1									2	1	6		
합계			23	7	6	1	2	1	6	7	1	2	1	1	1	1	1	1	2	1	2	4	70

□표: 인턴·레지던트 동일병원 수련자.

1970년도 평균 94.6%와는 근사하나 기간중의 여자의사 레지던트수련을 82.9%에 비하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가 나타난 원인은 본 조사가 1967~1975년 기간중에 이화대학을 졸업한 의사를 대상으로 행해진 반면, 차등은 1960년, 1965년, 1970년의 3개년도에 있어서의 6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수련한 여자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60년도를 전후하여 여자의사의 전문의수련율이 급격히 증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이와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의 90%이상 이 레지던트수련을 택하고 있음은 의과대학의 교육면에 있어서나 국민의료의 제도면에 있어서도 증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대다수 의사가 전문의수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과대학의 교육가능을 전문의수련교육의 예비과정으로 타락시키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고, 의료제도면으로는 1차의료보전기능을 수행할 의사와 2차의료보전기능을 수행할 전문의의 수요공급에 근본적인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교육제도와 전문의수련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변화가 없

으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친분의 선호와 레지던트수련을 택하는 경향은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 C. 수련한 병원과 수련의의 분포

이화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1967~1976년 기간중에 국내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수련을 한 병원은 사립병원이 22개, 국립병원이 8개, 공립병원이 5개, 도립병원이 2개로서 도합 37개 병원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편 수련의의 분포는 인턴수련에 있어서는 220명중 67.3%가 사립병원에서, 20.9%가 국립병원에서, 8.2%가 공립병원에서, 0.9%가 도립병원에서 수련하였고, 레지던트수련에 있어서는 167명중 74.3%가 사립병원에서, 22.8%가 국립병원에서, 1.7%가 공립병원에서 수련한 것으로 나타나있었다(표 4).

또한 이화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수련한 수련병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37개 수련병원중 23개 병원이 서울에 있고, 14개병원이 지방에 있었다. 그리고 37개 수련병원중 인턴수련을 받았던 병원수는 30개병

표 6-b. 1976년도 의사신고한 국내거주 이화의대 졸업의사가 수련받은 인턴수련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관계 (1972~1975년도 졸업자)

지역	레지던트수련한 병원	1 이화 의대 병원	2 연세 의대 병원	3 카톨릭의대 병원	4 한양 의대 병원	5 중 앙 의대 병원	6 고 려 병 원	7 서 울 위 생 병 원	8 순 천 향 병 원	9 영 동 성 신 병 원	10 을 지 병 원	11. 12 서울 의대 병원	13 국립 서울 병원	14 국립 경찰 병원	15 서울 적십자 병원	16 한 일 병 원	17 부산 일신 병원	18 부산 침례 병원	19 부산 의대 병원	20 원주 기독 병원	21 장 성 병 원	22 전주 예수 병원	23 광주 기독 병원	합 계	
서울 지역	1. 이화 의대 병원	30									1	1												2 35	
	2. 연세 의대 병원	3	6						1																10
	3. 카톨릭의대 병원			1																					1
	4. 한양 대병원의	1																							1
	5. 고 려 병 원	2					2																		4
	6. 서울 위생 병원			1				1				1													3
	7. 순 천 향 병 원	1							1																2
	8. 서울 의대 병원											2													2
	9. 국립 의 료 원					1							12												13
	10. 국립 서울 병원	3								1				2											6
	11. 국립 원호 병원						1																		1
	12. 국립 경찰 병원														1										1
	13. 시립 동부 병원			1																					1
	14. 서울적십자병원												2			1									3
	15. 한 일 병 원																1								1
부산시	16. 부산 일신 병원									1							1								2
	17. 부산 침례 병원						1											2							3
	18. 부산 의대 병원																		1						1
경기도	19. 인천 기독 병원	2		1																					3
	20. 경기 도립 병원			1																					1
강원도	21. 원주 기독 병원																				2				2
	22. 장 성 병 원	1																							1
전북	23. 전주 예수 병원	1							1													3			5
	24. 광주 기독 병원																						1		1
합	계	44	7	3	1	2	4	1	2	1	1	3	15	2	2	1	1	1	2	1	2	4	1	2	103

\* 인턴수련중인 1976년도 졸업자 제외 □표: 인턴·레지던트 동일병원 수련자

원, 레지던트수련을 받았던 병원수는 28개병원이었으며 인턴과 레지던트수련을 다 같이 받았던 병원수는 21개 병원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편 수련병원이 소재하는 지역별 수련의 분포를 보면 인턴수련의 82.2% (181명)과 레지던트수련의 86.1%(144명)가 서울에서 수련을 받았던것으로 나타나 있었다(표 5).

졸업년도에 따라 수련한 병원수를 보면 그룹 "A"는 16개병원에서 인턴수련을 17개병원에서 레지던트수련을 받은 데 비해 그룹 "B"는 인턴수련을 26개 병원에

서, 레지던트수련을 22개병원에서 받고있었다.

통계적 자료로 볼 때 1967~1971년에 졸업한 그룹 "A"보다 1971~1976년에 졸업하였던 그룹 "B"가 양적으로 인턴수련을 받은 병원수나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던 병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이화의대 졸업생들이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국내 여러 병원에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수련병원별 수련의 분포에 있어서는 인턴수련이나 레지던트수련이 다같이 서울지역병원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지역 집중현상은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대도시 편재와 병원간의 시설 격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수련을 받기 위하여 갑자기 타 지역으로 생활을 옮김으로써 예상되는 환경변화와 불안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병원을 택하는 데 있어서 가족적연관, 선후배관계, 나아가서는 결혼문제등 인간적 연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것은 현행 수련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턴선발이 곧 레지던트 보장의 선행사항과 같은 인식을 주고 있는 병원이 적지않기 때문에 대학을 갓 나온 수련의 지망자에게 인턴 수련병원 선택에 대하여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같이 생각될 때가 많다. 그러나 병원에 따라서는 인턴과 레지던트수련의 선발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표 6-a나 표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턴수련을 마친 병원에서 다시 레지던트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는 과반수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인턴수련의가 타병원으로 레지던트수련을 위하여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가운데는 자기가 희망하는 수련과를 선의의 경합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결혼 또는 빈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람직한 전문의 수련교육은 의과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현행 인턴수준의 임상실력 배양과 환자에 접할 기회를 부여 하고, 본인의 소질과 취향을 토대로 하여 졸업후 인턴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희망하는 레지던트수련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결 론

1967년에서 1976년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중 국내에 거주하면서 1976년도 의사정기신고를 한 의사 228명을 대상으로하고 그 신고내용을 토대로 졸업후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44.7%가 졸업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의사정기신고(1976년도)를 하고 있었다.

2) 이화의대 졸업의사의 96.5%가 인턴수련을 택하고 있었으며 그중 인턴수련후 96.5%가 레지던트수련과정을 택하고 있었다.

3) 졸업년도가 낮은 졸업생일수록 전문의수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4) 이화의대 졸업의사가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던 수련병원수는 37개 병원이었으며 그 중 23개병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었다.

5) 졸업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수련 받는 병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6) 이화의대를 졸업한 수련의사중 82.2%의 인턴수련의와 86.1%의 레지던트수련의가 서울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7) 이화의대 졸업의사중 인턴 수련 및 레지던트수련을 동일병원에서 수련받은 의사수는 전체수련의 61.0%의 이었다.

<후기 : 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여준 의학과 박숙현, 김효진, 성금영 학생과 자료처리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여준 대학원 의학과 김경희 학생에게 감사한다. >

## —References—

- 1) George E. Miller: Educational Objectives, Public Health Papers No.52, W.H.O., Geneva, 1970.
- 2) 崔三燮 : 인턴修鍊과정 廢止論, 醫學同人, 8, 48~49, 1976.
- 3) 이문호 ; 전문의제도의 개선방안, 대한의학협회지, 20, 105~107, 1977.
- 4) 박형중 : 제 4 차 5 개년계획과 의료제도, 대한의학협회지, 20, 91~93, 1977.
- 5) 崔三燮 : 인턴·全科醫敎育의 問題點 및 進路, 醫學同人 6, 43~44, 1977.
- 6) 박혜영·양미혜, 최균룡 ; 의과대학졸업의사의 의료활동실력에 관한 조사, 이화의학지, 10, 42~44, 1977.